



김제자봉센터, 드림스타트 저소득아동에 후원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허현기)는 지난 15일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지원해 달리며 김제시드림스타트(시장 박준배)에 원목 테이블 13개를 전달해 훈훈함을 전했다.

이번 후원 테이블은 김제시자원봉사센터 한마음기적봉사단 6가족 22명이 한뜻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 경제적·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며 그 의미가 더 소중하고 값질 것 같다.

허현기센터장은 “코로나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소득가정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 정비

남원시는 여름철을 대비해 버스 승강장 내 쓰인 먼지를 털어내고 불법광고물, 스티커 등을 제거,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 승강장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에서는 이용객이 많은 시내권 승강장 105개소를 우선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읍면 승강장을 정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버스 승강장의 노후 시설 및 행선지 안내판 교체 39개소를 시행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에어컨 15개소 온열의 재5개소, 버스정보안내기 10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 사업 50개소를 완료하였다.

곽주영 교통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버스·택시 승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경찰, 강력하고 지속적인 음주단속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코로나19로 인한 음주단속이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하여 주·어린을 가리지 않고 수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저녁 심야간에는 예외 없는 강력한 음주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태호 서장은 “음주운전 단속, 홍보 등 교통안전 활동에 총력을 다해 음주운전 없는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구를 사랑하게 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완주군 여성단체협, 스피치 교육 시작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전경숙)가 전라북도 지원사업에 선정돼 관내 여성들을 위한 스피치 교육을 시작했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여성단체협의회의 점포업 라이프 아카데미 교육이 2021년 전라북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점포업 라이프 아카데미 교육은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스피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조리 있게 말하고 당당하게 자기표현을 함으로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신뢰감을 높여 대인관계, 역량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진봉면, '농촌일손돕기 한번 더하기' 실천

김제시 진봉면(면장 오승영)이 코로나9 장기화로 인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한번 더하기’를 실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진봉면 직원 11명은 지난 11일 진봉면 석교리를 방문해 농가에 이어 18일에는 최근 잣은 비로 인해 논공 식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전마을 논콩 재배 농가를 찾아 논공 식재를 도왔다.

이들은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느끼고 코로나9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점심 식사와 작업 도구 등을 사전 준비하고 보람찬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남원시 향교동, 직능단체장 간담회 개최

남원시 향교동은 1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직능단체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교동 인구유입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향교동 정주인구 7,100명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동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했다.

이날 각 직능단체장들은 단체별 3명 향교동으로 주소옮기기 실천, 향교동 실거주 미전입자 주소이전 독려 등 각 단체에서 앞장서 향교동 인구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지양근 향교동장은 “시의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내 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